

“예비비 편성 여수 석유화학 플랜트 기업 돕겠다”

김영록 지사, 여수서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방안 논의 순천에선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 청취 “민생 안정 주력”

전남도가 예비비를 편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 석유화학 플랜트 기업 지원에 나선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0일 여수국가산업단지 소재 ㈜용호기계기술 공장을 방문해 석유화학산업 위기에 따른 산단 내 중소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장에는 정성호 용호기계기술 대표와 임직원,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주중섭 도의원, 최정기 여수시 부시장, 박진만 한국산업단지공단 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 화학단지인 여수 석유화학산업은 전남 경제 성장의 핵심이자 지역 경제의 기동이지만 최근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대규모 신규 투자가 감소하고 유지보수 물량도 줄어 산단 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용호기계기술은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대표 플랜트 제조기업이다. 1997년 설립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이뤘 2023년 888억원의 매출을 거두는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로 매출액이 줄어 적자 전환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다.

정성호 대표는 “석유화학산업 분야 대기업의 신규 투자나 유지보수 물량이 급격히 줄면서 연관 중소기업도 매출이 감소해 직원들의 고용 유지가 어렵다”며 직원 고용 유지,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 지원과 함께 물량 확보를 위한 신규 대형 국가사업 등을 요청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을 위해 전남조직인 ‘위기대응 추진단’이 운영될 예정이다. 산 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이뤄지면 기업에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0일 순천시 중앙동 상가를 방문,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라며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지난 상황과 준한 것으로 여겨 2025년 예비비를 편성해 매출이 감소한 석유화학 플랜트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지사는 “CCUS 클러스터 구축, 수소 배관망 구축, 지속가능항공유(SAF) 기술개발 등 대규모 국가사업을 확보해 여수산단 내 플랜트회사가 참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여수시와 함께 2025년 예비비 30억원을 확보해 석유화학 플랜트 매출 감소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안정과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규모 확대 및

이자 지원, 지방세 징수유예 및 기한 연장 등 여수산단 기업의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순천 중앙 상점가를 찾아 경기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장 방문에는 전남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순천 중앙 상가 인근 소상공인 20여명이 함께했다.

김 지사는 상권 운영 현황을 듣고 정육점, 식당, 가게 등에서 상인이 겪는 현실적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상인들은 연말연시 대목임에도 고물가에 따른 방문객과 매출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지사는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같아 힘을 보태드리고자 한다”며 “체감경기가 살아나도록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민생안정을 위해 마련한 1천186억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설명하며 “전남도가 앞장서 흔들림 없이 경제와 민생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전남 기업, CES서 기술력·성장가능성 확인

15개 기업 전남관 운영...2천822만달러 수출 업무협약

전남도는 1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인 CES 2025에서 지난 10일까지 4일간 전남관을 운영, 기업의 혁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세계에 알리고 2천822만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전남관에는 15개 기업이 참여해 인공지능(AI), 메타버스,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비케이에너지는 미국 A사에 10MW 규모의 그린수소발전기를, 미국 B사에 수상태

양광 장비를 공급하는 총 2천822만달러 계약을 체결했다.

㈜터빈크루는 미국 C사와 20만달러 규모의 스마트가로등 공급 협약, ㈜스마트큐브는 미국 D사와 메타버스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발 업무협약을 하며 글로벌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휴먼아이티솔루션과 ㈜비케이에너지는 CES 2025에 이어 2년 연속 참가하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휴먼아이티솔루션은 글로벌기업인 메

타 플랫폼에 확장현실 콘텐츠를 성공적으로 입점 시켜 월 8천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비케이에너지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네바다주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참가 기업들은 글로벌 벤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기술을 선보였다. ㈜뉴작은 신체 착용기기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확장현실 플랫폼 기술로 메타버스와 콘텐츠·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 CES 2025 혁신상을 수상했다.

㈜스마트큐브는 3D와 AI를 활용한 스마트 투어 정보 서비스를, ㈜네오드림스는 재활치료용 AI 코칭 시스템을 소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양시원기자

광주시, 결식아동 급식단가 9천500원으로 인상

광주시는 12일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단가 지원금을 올해부터 9천원에서 9천5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급식단가 인상은 물가상승률과 결식아동의 급식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아동에게 영양이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아동의 다양한 급식 선

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아동, 교사·사회복지사·통장단 등이 발굴해 자치구 급식 위원회에서 결정한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 아동 1만6천여명이다.

이들은 일반음식점, 편의점, 패스트

푸드점 등 1만6천여곳의 급식카드 가맹점을 이용하거나 도시락 배달, 지역 아동센터 등을 통해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단체급식의 특성을 반영해 급식단가 지원금을 8천원에서 8천500원으로 인상한다.

광주시는 총 예산 224억원을 반영해 결식 우려 아동을 지원한다. /변은진기자

姜시장, ‘민주도시 광주의 경험’ 세계와 공유

美샌안토니오 ‘드림워크2025’ 개막식 온라인 기조연설 ‘12·3 계엄사태’ 이후 민주주의 위기 극복 과정 등 소개

강기정 광주시장이 미국 샌안토니오 시에서 열린 ‘드림워크 2025’ 개막식 기조연설자로 나서 ‘민주도시 광주의 경험’을 세계에 알렸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전날(현지시간 10일) 열린 개막식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12·3 계엄-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소개했다.

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보내준 론 니렌버그 샌안토니오시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12월3일 밤 계엄이 선포되자 SNS로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계엄군보다 빠르게 국회로 달려와 맨몸으로 장갑차와 계엄군을 막아섰다”며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간 190명의 국회의원들은 단 2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고 당시 긴박했던 상

황을 떠올렸다. 이어 그는 대통령 탄핵과 내란세력의 처벌을 요구하며 추운 겨울 매일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의 활약을 전했다.

강 시장은 “이 놀라운 힘은 과거 광주의 경험과 깊은 연관이 있다”며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총을 겨냥고 수백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시민들은 낮에는 주먹밥과 피를 나눠주고 밤이면 광장에 모여 안부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1980년 광주는 대한민국에 ‘절대 공동체’라는 아이디어를 보여줬고 ‘국가는 결코 국민을 향해 총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남겼다”며 “과거의 광주가 현재의 대한민국을 도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론 니렌버그 샌안토니오 시장은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세계적

으로 알려진 평화의 도시 광주시민들이 보여준 연대와 단결은 영감이 된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변은진기자

GGN-오니온AI ‘자동번역·더빙’ 협약

GGN글로벌광주방송이 인공지능(AI) 자동 번역·더빙 기술을 활용, 더 나은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GGN글로벌 광주방송은 지난 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정보통신기술전시회인 ‘CES 2025’ 통합한국관 내 광주관에서 ㈜오니온에이아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흥나순 광주시 창업진흥과장과 김흥국 오니온에이아이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AI 자동 번역·더빙 기술 도입, 네트워크환경 조성·기술 지원, 다국어 콘텐츠 제작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변은진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알고당시다

개인형이동장치

01

무면허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범칙금 10만원

02

승차정원 초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1명
전기자전거: 2명

범칙금 4만원

03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04

음주운전



음주운전 금지·취소

범칙금 10만원

05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태료 10만원



한국도로교통공단
KORROAD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